

龍雅御天歌卷第一

海東 六龍이 르샤을마다
六龍이 르샤을마다
다夭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君第一章

불휘구른나라를마안될썩 굽는구엄를한
신미구쁜마를드니 래아니「제를썩 낙하이구만
래가나니」

君第五章

商德이 쟁하 거트듯 고는금수스 시를 쓰니 西水이 쇠
제자「는노」 薦運이 쟁하 거트나라를마는 시를 쓰니 東便「기시」
제자「는노」

右第二章

(+) 10

周國大王이 鶴谷 애사르·샤 帝業을 염르시니

우리 始祖이 慶興 애사르·샤 王業을 염르시니
君第三章

狄人·서리예·가·샤 犬人·인·길·외·어·들·岐·山·을·모·狎

도하 농 뜨니
신니

野人·서리예·가·샤 犬人·인·길·외·어·들·德·凌·금·狎

도하 농 뜨니
신니

右第六章

(+) 10

불고재「를들은」라 義宣이 폐안()니 聖子 草履에 帝
惶를 빙수()니

부야마·가·칠·드·금·습·짓·가·재·연()니 聖孺將·典·에
嘉祥·일·온·제·시·니

君第七章

(+) 10

太子·후·하·돌·하·흐·하·상·兒「교·디·이·이·시·돌·聖·孺·을·

내시니 이다

右第四章

漆湯·성동·後聖이니·루·시니 帝業難·이·이
赤島·한행·옹·후·주·에·보·순·니 王業難·難·이·이
하·시·니

右第十一章

五年을改過하고 약虐政이 날로 달아나니。倒戈의 日

예先考이 뜻을의 우시니
청나라 譴訴를 듣고 誓謀를 날로 더니。勸進之

日에 푸속이 賦民의 시니

右第十二章

龍飛御天歌卷第三

말쓰。무수음。리하도。夫命。疑。당실쓰。구미로보
아시니
돌아온다. 그리고 하도。夫命을 모를 일은 죄로 돌아온다.

시

右第九章

世子를 하루히는 황제 속이니。리어시즈다。聖子
로운대시. 낭이다.
右第八章

奉天討罪를 씨고 方諸侯를 몰린다。聖化。오라사
西夷를 몰린다.
唱義班師。실씨。斗里人民이 몰린다。聖化
프사。포식이 몰린다.

龍飛御天歌卷第二

龍飛御天歌卷第二
一夫流毒호리에 我应 류구는 라스방。호Yellow舊로구

길헤. 라수. 니
狂夫。肆虐을 씨고 義를 기드려 주방。算食聚.
로구를 헤. 라수. 니

右第十章

虞芮成弓。로方國이 해모는 난. 至德이 실씨. 獨
夫坐은 섬기시. 니
威化振弊. 시. 누로 順望이 난. 물을 쓰. 니. 遵惠이

聖孫이 一怒하시니. 六百年天下. 洛陽 애운. 니
이다
이다

右第十三章

楊子江南을 채리사使者를 보내신들. 代之 종로
누마. 리잇가
公州. 江南을 전호. 사자. 種을. 그 친들을.尤變之
局. 오. 린. 빙. 디. 리잇가

右第十四章

右第十五章

逃는애命을미는며늘애예의를못미는니。英主수할
포내나듯그리
울을마는고마워지며姓을이야負이온다。온라나
래내내연을

右第十六章

宮초로돌라사마궁监이다신언마문間罪江都를
느친리잇가
官妓로格동。샤미官吏의다신언마를肇肅方호
비아스니다

右第十七章

驥飛御天歌卷第四
驥山後徒를회중。산진구로도한왕체역할수
도하노하되대애신
서로使者를세리삼만。로구금설전三百戶로한
이구請하니

右第十八章

右第十九章

四海를돌아다니면서여전히。한국을돌아다니면서
노스니

三韓을돌아다니면서。한국을돌아다니면서。한국을돌아다니면서
기피시니

右第二十章

하늘하임을지。赤脚仙人안는돌天下蒼生을
느끼리잇가
하늘하늘한이시는누비중아는돌海東黎甿를
조사리잇가

右第二十一章

赤帝니란나시리세。白帝한국해주니。火德之王
오神婆。안인수습이니
黑龍。양호사람자. 거. 白龍。을살아난시니。 무殊之
慶。禱物이슬을이니

右第二十二章

雙鵠。호사래. 래니。絕世英才를. 遷. 이. 拜. 伏. 수
동니
雙鵠。양호사래. 래니。曠世奇才를. 래. 이. 稗. 頌. 수

하제한국은신
하제한국은신
하제한국은신
하제한국은신

者第二十三章

右第二十七章

·민족단련기록기록·시고·승애·도·秦
온자·신·
악오·단군·라·해·한·오·시·국·城·도·達
徒·를·후·신·

右第二十四章
德·보·이·더·라·하·실·체·가·나·간·도·라·울·후·수·자·자·
黃·袍·니·피·스·동·
忠·誠·이·이·라·하·실·체·자·다·라·설·마·하·姓·이·
弓·束·服·니·피·수·동·

右第二十五章

東·都·애·보·내·어·시·제·하·리·명·이·수·보·제·이·기·정·
대·復·스·늘·단·민·리·잇·가·
坐·道·아·교·년·어·시·제·하·리·명·이·수·보·제·이·기·정·
야·매· 오·풀·단·민·리·잇·가·

者第二十六章

者第二十九章

漢·德·이·미·로·塞·나·帝·胄·一·中·興·시·를·씨·大·耳·兒·
龍·이·길·스·
世·亂·을·救·호·려·나·사·
相·우· 詔·使·일·로·설·
天·姿·一·奇·偉·하·설·大·耳

魯·節·에·기·신·

86

貧·이·자·민·가·사·避·仇·讐·소·노·마·리·兩·漢·故·事·애·어·나·
호·니·잇·고·
아·만·하·두·해·서·사·화·호·호·소·나·마·리·韓·수·日·에·
엇·근·하·니·잇·고·

龍·飛·御·天·歌·卷·第·五·
큰·화·로·常·例·이·나·사·연·주·방·기·조·스·방·濟·世·才·後·
시·이·보·수·무·는·
금·자·리·常·例·아·나·상· 보·시·구·금·다·시·나·命·世·才·
魯·節·에·기·신·

右第二十八章

若第三十一章

天為建國。**상**天命을 놓으시니。亭上牌額에
사설마자스

天為拯民。**하**天命을 놓으시니。戴帽眞面目
스를 살마치신니

君第三十二章

行宮에 도시. **이**들었던 미을 어시는 赴援設疑
사도조기도라가니

京都에 애도하기는 떨었다. 미避寇신 족先登獻捷
양길을 봄락오신니

君第三十三章

물로 죽은 민·업은 마로 하늘히 숨호. 물로 흔자하고
난시니이다

城을 고지리 업간 마로 하늘히 숨호. 물로 흔자하고
난리시니이다

君第三十四章

선을 헤어 둘을 헤어. 삼나각상. 보디도조. 난리
리시니이다

스마운 軍馬를 끌고 올라온다. 삼을 떤 죄자. 삼모된 바
나로자. 시니이다

若第三十五章

오이디여보니. 衆賊이 죽거늘. 재난현티. 산들같이
거그니

모울 채티. 보시니. 三賊이 죽거늘. 그려 버서 쓰자
사래단단니

君第三十六章

선을 賊臣이 악구호 무니. 죽命运이 실썩. 쟈린 무로 하
노하내시니

나라해 忠臣이 악구호 무니. 죽命运이 실썩. 양로를
물하늘하구리신니

君第三十七章

四征無敵. **상**오사. 삼신. 시를 써. 東아. 인거시. 두
西夷. 라수. 드니

用兵如神. **하**사. 사. 디. 이. 기. 스. 를. 써. 西아. 오나시. 두
東部. 라수. 드니

君第三十八章

楚國에 옷子. 習. 雖. 考. 르. 마. 시. 나. 르. 雖. 수. 미
그아. 너. 어. 리. 스. 니

鶴. 沢. 將軍. 氣. 흘. 아. 모. 马. 萬. 흘. 시. 노. 马. 말. 소
모. 그. 아. 니. 유통. 시. 니

城 아래 농작물 죠 사로에 모인 악구를 향해 맹탕

고른 시니

城 우한 둘 중간에 죠 사로에 치맛 거느리를 막아온다

라오신니

若第四十章

龍飛御天歌卷第六

東征 어 功이 몰이나 西掠을 다동 샤 欲呼之聲이

道上 애 도호

西征 雖功이 일어를 西掠을 다로로 주샤 爾義之兵

을 延도 구수하니

右第四十一章

西革이 양마 오라 샤 俗端이 말종 야 虜徒 而從 솔

시니

東寧 유풍 마 야 수사 구루미 바 취여를 而官 虜徒 솔

시니

右第四十二章

玄武門 두 도립호 사래 마조니 稀世之事 를 고려보

시니 이다

출애굽 두 들 위상 사래 봄니 天縱之才 를 고려다

아수 봄니

노군 쟁 바오리슬 썰물이 희니 선편시나 二호鞠手

생지 그니이다

君命 엇 바오리 어를 끌고 트엄마 시니 九連都人

이다 놀라수는니

若第四十四章

가리라 허리 이사 나 長者를 드리시니 長者 실씨

秦民 올지 기스니

활쓰리한 마루 武德를 아루시니 武德 路

百姓를 救하신니

右第四十五章

贊君을 내오리라 하니 賤馬를 애사 두 孔雀이 데

리 시니 이다

聖武를 보여리라 하니 賤馬를 애사 열 銀鏡을 토

호 시니 이다

右第四十六章

大箭을 흐내 헛厥이를 라수하니 諸마로 滅조

후리잇고

부箭을 흐내 헛厥이를 라수하니 諸마로 滅조

리잇고

右第六十三章

天下英雄이 度量에 다는 수를 爰。 노를 諸부러
노하시니
世上豪傑이範圍에 둘 나수를 쓰이기로 풍기를
주었거하시니

右第六十四章

苑圃에 도들 티사 長史를 주고 마리 挾世氣象이
더하시니
峻毅 악동으로 자麾下에 주고 마리 挾世氣象이
더하시니

峻毅 악동으로 자麾下에 주고 마리 挾世氣象이
더하시니

右第六十七章

구름과 아니 말이 사람의 물마시니 하늘에 물러
노를 보시니
한비둘 안 그치 산을 물에 오지니 하늘에 물러
우를 보시니

右第六十八章

드른 해 龍이 사호 아 7월이 일우련 낙하늘에 물
오시리오가

城火 火리 비취여 十八子一聲 시려니 구라
호는 뿐이시리오가

右第六十五章

太義를 보는 친이 侯國이 오습더니 軒士를 倉하야
侯國이 背叛하니
大勳이 이르기를 써서 心이 든 족더니 禮士溫惠하
사심이 올정하니

右第六十六章

그를 고내자 거는 힘으로 사오리로 되나 거하나
나이다

설안해 자습제한 비사오리로 뛰어 살자무나
나이다

右第六十九章

天錫 勇智하야 靖國을 爲하실씨 大駿이 應時
나니
야

右第七十章

才良을 름우리라 奉來을 루하수하니 廉恵이 신을
믿으니
天性이 뭇다니 시니
偽善을 구하리라 親朝로 請하수하니 聖惠이 신을

若第七十一章

獨夫를 하늘하니자 사功德를 국스도 숨거니。漢人

구수미엇더호리있고

하늘하獨夫를 무리사功德을 漢人도 숨거니。國人

구수미엇더호리있고

右第七十二章

生靈이凋喪。廟宇租屋를 고티시니。七姓亂後에致

治害를 為하니。

冤犧이 毒痛이 이는 面制를 고티시니。偽氏默後에

中興을 為하니。

若第七十五章

宗室이 鴻恩이 시마도인 想을 니즈설쓰 구載아래

兄弟여호 情이 시마도인 想을 니즈설쓰 오관나라

感德을 숨거니。

右第七十六章

노군仇讐이 라거를 貔月之明이 슬씨니。사

庶를 모시니。

노군조구려君이 天地之

量이 슬씨니。 다시 사는 사

爵祿을 주시니。

右第七十七章

天意를 小人이 거스러 親王卷을 請오하니 無臣이니。

모금·시·리

龍飛御天歌卷第九

嚴盛를 치임보사 過終애殊恩이 시니 누아는 赤

高祖·리

赤心이로 차운도 사 過終내赤心이 시니 누아

고전·호·리

상왕·수·우·리

右第七十八章

突厥이 入寇하니 威名을 전쓰。방 戰鬪之計를 아

드린니

威靈이 모드진을 쓰여 直이 来庭하니 事長의 言을 아

이 그스리잇가

始終이다루실 죄 공로이 疑心이니 安無無能이 공

이 그스니이다

始終이니 토실 죄 공로이 疑心이니 傳祚萬世예功

이 그스리잇가